

경영대 학생회, 법인단체 등록도 눈길



회칙 개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전체에게 강제할 순 없게 됐으나, 서울캠 총학은 이후 특별자치기구와 단과대 학생회, 학부와 학과 학생회 등의 학생자치기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회계감사를 시범 운영했다. 총학생회를 포함해 총 18개의 단위가 신청대상이 되었고, 이중 4개의 특별자치기구와 7개 단과대 학생회, 그리고 6개의 학과 학생회가 회계감사를 신청했다. 신청한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감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2명의 학생을 포함한 총 8명의 재학생 자원자가 감사단을 꾸려 진행했다. 이 감사단은 각 학생자치단체의 연간 자치회비 결산내역에 대한 검토와 피드백을 해줬음은 물론이고, 그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학생회와 함께 ‘회계감사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감사 결과, ‘2015년 회계감사’를 신청한 17개 학생자치단체 모두 기본적인 사용내역을 누락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좋은 평을 받았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과 같이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을 제대로 수취하거나 올바르게 보관하지 않아 이 점에서 수차례 지적을 받았다. 또 타인 명의의 카드로 먼저 계산한 후 자치회비 통장에서 계좌이체 하는 방식의 거래내역이 심심찮게 발견되어, ‘절대로 이런 식으로 거래해선

지난해 10월 우리신문에서 서울캠퍼스에 소속된 13개 단과대 학생회를 대상으로 자치회비 결산내역의 공시방식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시 방식과 그 시기가 제각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매달 주기적으로 결산내역을 공시하는 단과대는 극히 드물었고, 대부분이 학기말이나 특별히 주기를 정해놓지는 않은 실정이었다.

안 된다’는 감사단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후 총학생회 측은 제작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자치회비 결산 표준 지침’을 비롯한 각종 양식샘플과 작성예시 등을 정리해서 서울캠 총학생회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했다. ‘2015 회계감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자치기구에서도 이를 참고해 향후 회비 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첫 회계 감사였던지라 많은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이 도출됐지만, 이전까지는 각 학생자치기구나름의 기준에 의거해 ‘재량껏’ 자치회비를 관리해왔던 것에 비하면 자치회비 운영에 대한 시스템적인 관리가 최초로 이뤄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치회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각 학생자치기구의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제14대 경영대학 학생회 ‘더함’의 색다른 시도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4일, 경영대학 페이지에는 ‘세무서 공식절차를 밟아, 경영대학 학생회를 비영리단체로 등록할 예정’이라는 공지사항이 올라온 바 있다. 비영리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다. 경영대학 학생회가 비영리단체 등록을 시도하는 이유는 보다 투명한 회계 절차를 위해 법인통장과 법인가드를 개설하기 위함이다. 비영리단체로 등록

된 단체는 ‘등록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단체등록증’과 ‘법인통장과 법인카드 개설이 가능’하다. 경영대학 최상현(경영학 2012) 회장은 “개설될 법인통장의 명의로는 ‘경영대학고 경영대학 학생회’로 지정할 것”이라며 “이를 차기 학생회에 대대로 물려주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자치회비 납부 확인과 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회계 투명성 높이려는 노력 증가 사용 내역의 타당성 검증은 ‘아직’

비영리단체 등록을 위해서는 단체정관, 회의록 등의 제반서류를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현 경영대학 학생회 이전까지 학생회칙이 따로 없었다. 이에 경영대학 학생회 측은 올 3월 초에 학생회칙을 제정해 이를 공식 홈페이지에 올렸다. 최 회장은 “현재 학생회칙을 작성해 공개한 상태”라며 “지침서류가 준비되는대로 법인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살펴봤듯, ‘등록금고지서에 포함되어 고지되는 자치회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학생회 자구적 노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는,

‘소속된 학부나 학과 학생회에 직접 납부하는 자치회비’의 존재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진 바가 없다.

‘소속된 학부나 학과 학생회에 직접 납부하는 자치회비’는 통상적으로 입학 직후, 총 8학기(4년) 분의 학생 회비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 학기 분의 금액을 상정한 후 이것의 8배를 신입생들로부터 한꺼번에 납입 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전과, 자퇴, 퇴학 등의 이유로 여덟 학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는 맹점은 차치하더라도, 각 학부 또는 학과마다 상이한 금액 책정 기준이 심지어 명확하게 공개되지도 않고 있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학생 자치기구가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르는 신입생들에게 무려 8학기 분의 학생회비를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신입생들이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오해나 의혹, 혹은 부당함을 느끼며 학생자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는 점 역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렇게 걸친 자치회비의 사용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도 문제다. 지난해 10월 우리신문에서 서울캠퍼스에 소속된 13개 단과대 학생회를 대상으로 자치회비 결산내역의 공시방식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는 한 군데도 빠짐없이 자치회비 결산내역을 공개하고 있었으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단과대별로 이를 공시하는 방식과 그 시기가 제각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매달 대표자 회의에서 이를 발표하고 이후 회의록이나 결산내역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모범적인 단과대가 있는가 하면, 학생이 학생회실에 직접 찾아가 요청해야만 열람이 가능한 단과대도 있었다. 매달 주기적으로 결산내역을 공시하는 단과대는 극히 드물었고, 대부분이 학기말이나 특별히 주기를 정해놓지는 않은 실정이었다.

결국, 자치회비의 모호한 내역산정과 강제적인 납입요구, 불투명한 결산내역 공시 등으로 인해 학생회의 ‘자치회비’에 대한 학생 일반의 인식이 점차 부정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 덕분에 자치회비 납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다시 이 때문에 강제적인 납입요구가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생겨나게 되는 셈이다.

각 단과대 회칙을 정비하고 구성원에게 자치회비와 관련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는, 작금의 ‘자치회비에 대한 학생 일반의 부정적 인식’이 학생회의 경제적 측면을 넘어 존치의 측면을 뒤흔드는 요소로까지 번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3월 다섯째 주(03.28~04.01)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 캠퍼스 리크루팅(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면접)

행사명	모집부문	일시	장소
한화호텔앤드리조트/FC 채용면담	회계, 경영기획, FS영업, 식품구매	3.29(화)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글로벌이노비그룹 (고속, 타이머, 간설, DT, 세이버, 에어서울) 채용설명회	-	3.30(수) 14:00~16:00	청운관 B117호
KOTRA 일본기업취업설명회	-	3.30(수) 10:00~12: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메이카스트 면접스타일링 특강	-	3.30(수) 17:00~19: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글로벌이노비그룹 (고속, 타이머, 간설, DT, 세이버, 에어서울) 채용면담	-	3.30(수) 16:00~18:00	청운관 1층 상담실
현대글로벌비스 채용면담	채용연계형 인턴	4.1(금) 14:00~16: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 경희대학교 재(准)학생 및 졸업생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참석 가능(시작 시간 5분전까지 참석)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렌다를 참고해 주십시오.
- 채용설명회 관련 출석협조진 발급 :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배부

● 취업특강

특강제목	일시	장소
금융권 취업상담	3.30(수) 17:00~18:00	청운관 1층 취진처 회의실
창업의 이해	3.31(목) 13:00~15:00	청운관 B117호

● 취업진로지도 맞춤 컨설팅 (취업상담)

- 대상 :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 상세 내용

상담유형	컨설턴트	일시	장소	신청방법
개인 상담	분야별 컨설턴트 4명	월~금 (각 컨설턴트별 일정 상이함)	오비스홀 354호~356호 재법과대학 107-2호취업진로지원처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성적/상담, 메뉴에서 신청 (컨설턴트별 일정, 컨설팅 내용 확인 후 신청)
집단 상담	-	-	-	-

- 상담 신청자 의무사항 : 취업준비도 검사 참여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
상담 전, 후 각 1회(총 2회) 참여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날 취소 불가 (상담 당일 전날까지만 가능, 취소시 전화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프린트해서 지참(필수)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1.kh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연락처 02-961-0167~8, job@khu.ac.kr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상담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상담실입니다.
벗꽃이 피어나는 이 봄, 행복한 대학생활하고 계신가요?

학교생활을 더 잘하고 싶은 친구들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하고 싶은 친구들
자신을 좀 더 이해하길 원하는 친구들

언제든 학생생활상담실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 어떤 도움을 받나요?

1. 자신을 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2.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지지를 받습니다.

비밀 보장되나요?

검사해석 및 개인상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은, 비밀 보장을 가장 우선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1) 진로 및 학습검사
Holland 적성탐색검사
능력, 적성, 성격 및 가치관을 고려한 나의 진로와 직업 알아보기
언제? 나의 진로 및 적성이 궁금할 때 알아보는 검사
UIO 진로탐색검사
진로 및 흥미분야와 자신의 성격간격 일치성을 알아보기
언제? 진로흥미와 자기성향이 맞지 않아 진로선택이 고민될 때
UIO 학습유형검사
학습과 관련된 성격, 행동을 토대로 자신의 학습유형 파악하기

언제? 공부방법에 대한 이해부족 및 학습에 어려움이 있을 때

2) 심리 및 성격검사
다면적 인성검사 [MMPI-2]
자신의 행동 및 성격특성과 적응 정도에 대한 이해를 도움
언제? 나의 현재 심리상태가 궁금할 때 (우울, 불안 등)
기질 및 성격검사 [TCI]
자신의 기질과 성격을 평가하여 나의 성격과 감정, 대인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도움
언제? 자기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
성격유형검사 [MBTI]
자신의 심리적 경향성을 알고 성격의 장·단점을 알아봄
언제? 자신과 타인에 대해 이해하고 싶을 때

상담받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내 문제를 직면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앞에서 힘이 돼 준 선생님과 진솔한 관계를 맺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는 좀 더 나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잘 알아차리고 존중해줘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었고 자신에게 불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상담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시 간 : 오후 9시~ 오후 17시까지(점심시간 12~13시)
장 소 : 학생회관 218호 학생생활상담실
연락처 : 031) 201-2806
이메일 : councse@khu.ac.kr
예약방법 : 전화나 메일, 직접방문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학생생활상담팀